지역 메아리

고창서, 추석 전 기강확립 추진 중간 진행사항 점검 토론 열어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서장을 비롯 전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종 비위예방 등 기강확립 추진 중간 진행사항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는 물론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관리자들이 솔선 직원들에게 반복 교양하는 한편 전 기능별 자체 기강확립 추진 계획을 세워 실시함으로써 비위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은 "국민을 단속하는 경찰이 모범이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비위예방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계획을 세워 실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박헌수 서장은 "국민에게 솔선수범해야하는 경찰로서 오히려 비난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청렴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신뢰받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장명동민 한마음 걷기 대회 성료

지역민 건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장명동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명동 체육회(회장 양인권)가 주관하고 장명동주민센터와 지역 내 기관 단체들이 후원했다.

행사는 정읍동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 장명농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한마음 걷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전북도의회 의원과 정읍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모두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서온 권오풍 전(前) 장명동 체육회장과 김형수 장명동 12통장에게 시장 감사패가 수여됐다.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성황산 주변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걷기 코스에 도전했다. 가족, 이웃과 함께 참여한 주민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과 함께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대화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냉장고와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도 전달됐다.

주민센터는 "이번 행사가 동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동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해서 살기 좋은 장명동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사계철 찾고 싶은 어촌 만든다

고창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프로젝트' 참여

시원한 바다 풍광, 맛좋은 수산물, 넉넉한 인심이 함께하는 어촌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2천여 개 어촌계에 소속된 13만 어업인, 정부·민간의 관계자, 관련분야 석학들이 힘을 모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으며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군수 박우정)도 지역 내 하전·용기·죽도어촌계와 함께 참여해 선진국형 어촌 만들기에 동참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프로젝트 발대식'은 섬·어촌·항포구 등을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세심하게 정비해 사시사철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어촌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촌주민 자율주도형 깨끗한 바다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및 우수마을 포상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바다 가꾸기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수어촌계에 어구보관창고 설치, 품격 있는 어촌테마마을, 어촌마을 공간구조 리모델링, 색채 있는 어항 조성,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항포구 관리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면서 국가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 자산이 우수하다"며 "지역 어민들은 바닷가 권역별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결성해 정화활동과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등 바다를 가꿔가고 있으며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고창군은 바다를 잘 지키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으로 국가정책에 맞는 성공 어촌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농협, 법률구조·소비자 문제 이동상담실 운영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법률구조 및 소비자 문제 등에 대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지난 21일 부안 농협 2층 회의실에서 부안 관내 조합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 농협의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일상 및 영농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에서 직접 강의 및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농업인 실익사업 등에 대해 운영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석모 강사 등 전문가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 궁금한 사항이 있는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궁금한 상담을 해결해 주었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협이동상담실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익증진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전기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28일까지 자동차 제작사 지정 대리점에 접수… 1인 당 최대 2000만원

정읍시가 전기 자동차 구입시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원(15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10월 초순경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가 전기 자동차 구입시 1인 당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063.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일환 팜파티 운영 호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23일 사과밭 팜파티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기술센터는 이날 올해 초 사나나무를 분양받았던 전북도 내 54가구를 초청해 북면 하나사랑농장(대표 유인철)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이 꽃피는 사과밭 팜파티'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사과 수확을 비롯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확 체험 후 사과밭을 배경으로 펼쳐진 나무메기 음악공연과 글씨맵시 나눔 등의 소공연을 즐겼다. 이어 사과잼 만들기와 사과껍질 길게 깎기, 과수원 보물찾기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는 환경 생산자단체인 '한밝음공동체'의 양배추와 감자, 복숭아즙, 생강차 등을 판매해 인기를 모았다.

기술센터는 "팜파티는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만남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며 "소비자는 농촌문화 체험은 물론 농산물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좋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농산물 판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어린이 안전 체험캠프… 초등생 80명 전국119안전체험관 견학

정읍시가 지난 23일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80명은 전국119안전체험관을 견학했다.

어린이들은 화재 진압과 대피, 지진·태풍,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해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상황별 위기 탈출 요령 등을 터득했다.

어린이들은"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실제처럼 느껴졌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느라 힘 들었지만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다"고 말했다.

이날 인솔교사와 학생들은 최근 강릉 화재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며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재난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모금 동참

정읍시 의회(의장 유진섭) 의원 17명은 지난 21일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국민모금에 동참하는데 뜻을 모으고 170만원을 기탁함으로써 동상 건립에 힘을 실었다.

유진섭 의장은 "정읍을 상징하는 위대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국민모금에 정읍시 의회가 동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 역사적인 시민혁명의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정읍시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모금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정읍시 의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상은 전봉준 장군이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한 감옥터였던 전옥서터(서울 종로구 보신각 맞은편)에 약 16㎡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2018.3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사)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17년말까지 5억원의 국민 모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